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중재 합의제 활용법]

No. 844 | 2012. 2. 8.

## 중재 조항 꼼꼼하게 규정해 줘야



권용숙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2012년 각 기업들의 신년 사업 계획에서 인도네시아 투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투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고질적인 인프라 부족, 부정부패 등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의 고비용 소송 구조와 그 대안으로 제기되는 중재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사업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계약 집행 부문(Enforcing Contracts)에서 전체 평가 대상 183개국 중 156위를 차지했다. 소송비용(Cost of Claim)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의 6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가장 커 전체 소송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 선임비용이 높은 것은 인도네시아 민사소송 절차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민사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소가(訴價)가 낮거나 논점이 단순한 소위 '쉬운' 사건도 10회 정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법원에 출석한 변호사들은 최소한 3~4시간을 자기 사건을 기다리느라 재판정 안팎에서 보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변호사들은 소가에 비해 높은 수임료를 고객에게 요구하기게 마련이다...(중략)

- [한경 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